

문화광장



현 승 훈
다량서 건축사사무소

고(故) 김영갑 작가의 기증 사진전을 보러 국립제주박물관에 다녀왔다. 먼 마을 삼달리에 있는 김영갑 갤러리두모악에서 보던 그의 사진을 오랜만에 시내에서 함께하게 돼 반가웠다. 사실 건축가인 필자는 사진을 보는 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그림에도 작가의 여러 사진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전해지는 특유의 분위기를 마음속에 간직해 왔었다. 전시를 둘러보고 있으면, 제주의 자연이 드러내는 순간순간들을 속속들이 마주하는 기분이 든다. 그 모든 순간에는 누구나

김영갑의 사진과 건축

감탄하는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닌 자연이 살아가는 생사고락(生死苦樂) 그대로가 담겨있는 듯하다. 작가는 말했다. “내가 사진에 붙잡아 두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빛과 바람, 구름, 비, 안개이다”라고 말이다. 고요히 앉아 있는 오름의 능선은 역새와 나무의 세찬 흔들림과 조우하고, 언덕을 뒤덮은 자옥한 구름 사이로 한 줌의 빗줄기가 새어 나온다. 땅의 평온함은 휘몰아치는 바람의 움직임에 의해 드러나고, 안갯속 어둠은 서서히 견하며 광명을 탄생케 하고 있었다. 모순이 벗어낸 다채로운 순간들의 향연! 변화무상(變化無常)한 날것의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며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그 현장에서 작가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는 바람이 불면

멈출 때까지, 구름이 능선을 넘어갈 때면 그 흐름이 끝나기까지, 언제나 긴 시간을 견디며 서 있었다고 한다. 같은 장소를 수없이 반복해 찾아 나서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익히고, 그 차이를 사진에 담고자 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그의 사진에서는 철나의 환상을 붙잡는 기술을 넘어서 자연과 영원히 함께하려는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전시를 보고 나니 두모악이 그리워진다. 작가가 오랜 시간 머물던 마을에 쓰임을 다한 폐교를 개조한 미술관. 말년에 루게릭병과 싸우며 더 이상 출사를 다닐 수 없게 됐을 때, 손수 일궈낸 작가의 마지막 작업이다. 그의 건축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다시 두모악을 찾아가 천천히 거닐며 여기저기를 들여다본다. 그러다 문득 이곳이 단순히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건물을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작업실에서는 사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흔적을 엿볼 수 있고, 전시실 창으로 스며드는 빛과 바람은 또 하나의 사진이 된다. 굳어가는 근육을 놀리지 않기 위해 마당 곳곳에 쌓아 올린 돌담에는 마삭줄이 덮여가고, 건물 주변으로는 풀과 나무가 솟아 외벽으로 뻗으며 담쟁이가 피어오른다. 자연을 사랑한 예술가의 건축은 자연의 생명력으로 다듬어지며, 또 그렇게 자연과 하나를 이뤄가는 듯했다. 김영갑 선생은 두모악에서 고이 잠들었지만, 그의 작업이 자연과 나눠갈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제주의 자연에 오롯이 녹아들려 한 그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우리에게 귀감을 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바라본다.

열린마당

셀프 주유소, 익숙함이 안전을 대신하지 않는다



한 세 훈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소방교

운전을 하다 보면 셀프 주유소는 자연스럽게 들르는 곳이 됐다. 처음에는 주유하는 방법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주유기를 들고 결제하는 일까지 몇 분이면 끝난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편리하다는 의미이지 만, 한편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다. 사람은 익숙한 일일수록 확인해야 할 것을 지나치게 쉽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지만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이다. 평소 아무 일 없이 이용

하다 보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시동을 켜 채 주유하거나 차량에 다시 올라탔다가 주유를 이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정전기다. 몸에 쌓인 작은 정전기가 휘발유 유증기와 만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문이나 정전기 제거 패드에 손을 대는 몇 초의 행동이 큰 사고를 막는 이유다. 주유를 마친 뒤에도 주유관이 제대로 거처됐는지, 주유구가 잘 닫혔는지, 주변에 기름이 새거나 이상한 냄새는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화재는 늘 이용하던 주유소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고를 막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잠시 멈춰 안전수칙을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 지사 “정책은 수용자 중심 설계해야”

교통 등 이용자 관점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의 공급과 운영 편의보다 실제 서비스 이용하는 도민의 필요와 불편을 우선하는 ‘수용자 중심’ 정책을 추진키로 해 주목.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교통과 관광, 응급의료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며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 위 지사는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면 실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되기 어렵다. 수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수용자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 오소범기자

‘더위 탈출 나눔 냉장고’ 눈길

○…서귀포시 동홍동과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철식·강익자)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더위 탈출!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며 눈길. 이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 강익자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생수 지원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로 이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 백규탁기자

사설

제주형 자율학교 다양성이 우선 아닌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고의숙 교육감이 최근 4년 사이 급증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이달 기준 101개교(초 77·중 18·고 6)이다. 그 유형도 다혼디배움학교를 비롯해 IB학교, 문예체학교, 마을생태학교, 글로벌역량학교, 미래역량학교, 인성학교, 디지털학교 등 모두 15개이다. 도내 초중고가 188개교(초 113·중 45·고 30, 분교 제외)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53.7%)이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율학교의 확대보다 정체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학교의 교육 내용 등에서 실질

적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15개에 이르는 지정 유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고 특정 자율학교로의 쏠림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의견들 대부분이 교육의 획일화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아 안타깝다. 가장 단순하게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을 되풀이한다면 정체성도 뚜렷해지고 특정학교 쏠림문제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교육의 다양성은 저절로 사라져갈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그 다양성을 실현하고 차별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의 몫이다. 공통의 기준이나 같은 시각으로 교육을 획일화한다면 자율학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재위험경보 ‘심각’… 사전 예방이 최선책

화재를 마귀에 비유해 화마(火魔)라 일컫는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나 진폐였다. 그만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소방청이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운영된다. ‘심각’ 단계는 전국 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가 3개 이상 특보가 2개 발령된 경우 내려진다. 전국 단위 ‘심각’ 경보 발령은 2022년 올진·삼척 대형 산불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도 폭염 경보와 폭염주의보, 열대야주의보가 연달아 발령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제주 여름철 화재는 총 647건이다. 전체 화재의 22.4%

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름철 화재 원인은 전기 기적 요인이 2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또 밀폐된 차량 내부는 짧은 시간에도 고온으로 변해 라이터,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등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가야 한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 등 피난통로의 물건을 치워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예방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선책이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고영민(1964. 05. 21.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성산읍 산성리114번길 156-10, (고성리)
- 등록기준지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41번길 16

상기자는 2026년 2월 1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7월 15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5318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상하동, 강남마을한라비발디)901동1101호

2026. 8. 11.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은혜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